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 조건

김영준¹, 강경숙^{2*}

¹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학 박사, ²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Convergence Curriculum between the 「Department of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in University-Educated Graduate School」 and the 「Department of Majors」

Young-Jun Kim¹, Kyung-Sook Kang^{2*}

¹Ph.D.,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²Ph.D.,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의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병행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현행의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에서 편성·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대상이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 가능한 전공과에서 교직 경력을 축적한 이후 융합교육과정으로 구축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정에 접근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적 기반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융합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중점 사항 역시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 전공과, 융합교육과정,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 조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qualify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convergence curriculum between the 「department of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in university-educated graduate school」 and 「major department」. The research method wa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literature analysis and expert meetings. The research contents include the qualifications for the training course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ilities established in the convergence curriculum after accumulating the teaching experience in the majors that can be restructured a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the focus of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in university-educated graduate school」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foster and integrate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The results of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as established.

Key Words : University-Educated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Major Department, Convergence Curriculum, Professional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Qualification Conditions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k Kang (grace86@wku.ac.k)

Received January 14, 2019

Revised February 15, 2019

Accepted March 20,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인기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업특수교육 분야는 성인계속교육 형태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큰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성인기 전환을 앞둔 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 연계에 대부분의 중점을 두고 있다[1]. 이는 직업특수교육 분야가 특수교육 분야에서 일반 교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과 같이 학령기 기반 특수교육과정의 직업교과 자체 정도로 인식되는 결과의 일환으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직업특수교육 분야의 핵심적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공과의 운영과 관계된 수업 연한이 1~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업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관계 정립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과는 학령기를 마친 성인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립생활의 성취를 위해 활발히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직업특수교육 분야의 평생교육적 접근으로의 재구조화와 이를 통한 전공과의 재구조화 역시 상생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직업특수교육 분야가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재구조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적용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직업특수교육전공을 R&D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 기반이 보완 및 개선될 필요가 있다[3]. 즉,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기반은 대학과 해당 학과 조직 자체의 문제만으로 연결되기보다는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직업특수교육 분야 전반의 개념 정립과 각종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기초 여건으로써 주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4,5]. 대학에서는 직업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실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화 제도를 교육과정적인 이수 기반을 직접적으로 개발 및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기반이 직업특수교육의 정체성과 위상을 비롯한 실천적 방향성을 조망하는 데 직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의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에서 편성·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반에 따라 전공과에 진출할 전문인력의 자격과 전문역량이 결정된다고 하겠다[6].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직업특수교육 분야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재구조화 및 발전되어 가는 데 있어 대학의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가 일관적으로 상생하는 융합교육과정(convergence curriculum)의 맥락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기반을 보완 및 개선하는 절차에 비해 직업특수교육의 직접적인 실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공과와 상생하여 융합교육과정의 맥락에서 교육과정 기반을 보완 및 개선하는 절차는 현행의 직업특수교과에 대한 자격화 제도를 문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7,8].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가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전공과의 교육적인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요구 및 개선방안을 명확히 마련하는 차원에서 학과 전공의 교육과정적 내용 기반을 마련할 경우 현행의 직업특수교과가 자격 취득 후 전공과 현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인식을 높여 나가게 되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학과 전공의 교육과정과 전공과 운영상의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상호 정합시킬 수 있는 이점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9]. 직업특수교육과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교육’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을 공통점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특수교과의 자격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으로 융합 및 발전됨에 있어 전공과는 일차적 중점 기관이 되며, 직업특수교과-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간의 융합적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전공과는 필수적으로 이수하거나 축적해야 할 실습 및 교직경력의 현장으로 역시 고려될 수밖에 없다[2,10]. 현행의 자격 구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이 별도로 개설되지 못하고 직업특수교과의 자격만이 개설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직업특수교과의 자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이차적으로 융합하는 절차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입장에서 역시 전공과의 교육적 여건과 개선 요구 상황을 수시 간헐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관련된 방향성을 수립하는 부분이 중요하다[1-3,7,11,12]. 다시 말해, 현행에서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특수교과의 자격과 이를 통한 전공과 진출 및 전문역량 수행 간의 통합적 측면을 충실하게 담보하는 가운데 성인기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부분을 융합할 수 있는 점진적 조건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은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에 대한 전문수행 역량을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제고하는 것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를 수립하려는 데에 주된 가치를 가진다. 현행의 직업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공과를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점에 의해 재구조화하려는 의도나 결과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 동향은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난다[3,8]. 이에 따라, 직업특수교육 및 전공과와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관계에 의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자격화 제도가 실제 언급된 경우는 아주 드문 실정이다[12,13]. 현행의 구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 동향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개괄적인 적용방안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현행의 직업특수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전공과 기관을 어떻게 활용하여 점진적인 평생교육의 범주와 융합할 것인가의 가능성과 적용방안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나아가, 이런 연구 동향으로 인하여 전공과의 관점이 포함된 직업특수교육과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융합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방향성의 경우 현행의 대학 직업특수교육과 교육과정 기반에 일반 평생교육사 자격화 제도를 융합시킨 정도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자격화 제도가 제안되고도 있다 [2,5,7,9,11,14].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 연구문헌은 국내 직업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의 측면을 감안해 볼 때 후속적으로 대학의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자격화 제도를 수립하려는 일환임을 지지해 주는 실제적 근거가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 제도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적용모델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후속연구의 관점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는 기초연구 범주에서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에 수반되어야 할 제반 조건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전공과 간 연계를 기점으로 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에 의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실제 양성될 수 있는 자격화 제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조 가능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직업특수교육전공을 비롯하여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 R&D 기능을 활발히 갖춘 대학의 주도적인 리더십이 전공과와 같은 유관기관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시설로 발전 및 재구조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단적으로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은 연구 목적과 같이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두 기관 간의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어 순차적인 맥락에 의한 몇 가지 구성요소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적 방안에 의해 양성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 자격화 제도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적용방안으로써 역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융합교육과정은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에 대한 통합 구성체계를 형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실천 기반을 의미하며, 현행의 교육 제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직업특수교사의 양성과 자격화 제도를 비롯해 전공과의 운영 여건을 기초적으로 수반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화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문헌 분석은 직업특수교육 및 전공과를 세부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문헌을 일차적으로 수집하는 가운데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점을 융합하여 논의 및 고찰하는 선행 연구문헌을 이차적으로 변별하여 활용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최종 수집된 자료의 수는 10편 내외 정도로 나타났으며, 관련된 연구 동향이나 결과적인 부분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 실정을 감안하여 연구 결과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상호 병행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면담이

아니라 자유로운 형식의 전문가별 토의를 통해 연구 내용에 수반되는 여러 구성요소를 연구 결과로써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문가 회의의 시 협의 형태의 토의를 전개하는 가운데 현행 직업특수교사에 대한 자격화 제도 및 전공과 운영 실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여부를 전문가별 의견에 대한 타당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총 5회(1회기 당 2시간 내외)에 걸쳐 진행되었다.

2. 본론

다음에서는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 조건을 절차적 맥락에 의해 몇 가지의 구성요소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2.1 기초적 자격 조건: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의」의 교육과정 기반 및 양성 자격 활용

직업특수교육 분야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현행 직업특수교육의 교사 양성에 대한 자격화 제도를 간과시킬 순 없다. 이런 자격화 제도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특수교사가 실제로 전공과에 진출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3,5,9,12,15]. 이에, 직업특수교육 분야에 관계된 대상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일차적 자격 조건은 현행의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에서 편성·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행의 직업특수교육 분야가 학령기 장애학생이나 성인기 전환을 앞둔 성인 초기의 장애인을 위주로 지원체제를 활발히 마련하고 있더라도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기반과 직업특수교사의 양성 자격은 전제 조건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직업특수교육 분야가 성인기 장애인의 관점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 차원 역시 학령기 특수교육과 융합되는 과정에서 계속교육의 지원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직업특수교사의 전문역량에 있어 학령기 장애학생의 직업생활 지도가 연

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4,8,12]. 그리고 현행의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보면, 직업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 뿐 아니라 일반 교과(예: 국어, 수학, 사회 등) 기반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아울러 편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업특수교사가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성인기 장애인의 교육 내용을 학령기 특수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비롯한 다양한 맥락과 의도에 의해 다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7,13]. 또한, 현행의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는 장애인재활상담(직업재활) 분야의 교과목(예: 재활행정 및 정책, 직업상담, 재활사례관리, 재활복지 등) 역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특수교사가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성인기 장애인의 직업 지도에 있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담보한다[1,5,9].

이상의 측면과 같이, 현행의 직업특수교사에 대한 자격화 제도를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기반을 활용하는 차원은 실효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활용이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에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에 앞서 현행의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과의 정합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 기반을 보완 및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1,5-10,14]. 즉, 직업특수교사의 전문역량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전공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기반 및 요구를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특수교사와 전공과 간 기능적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타당하게 정립한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화 제도를 위한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상기해 볼 수 있다[3,5,8,11-15].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에서 전공과의 교육과정 기반 및 요구 상황에 주의를 높일수록 전공과가 직업특수교사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간 정합성 측면에 주는 이점은 높아지게 되며, 그 이점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전공과를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연음에 따라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가 편성·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기반의 목적이 두 가지 자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가능

성 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후속적으로, 현행 전공과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에 대한 어려움 및 요구 상황을 보편적인 범주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기반에 맵핑시켜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 사례가 다양한 양식체계와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실습 이수 자격 조건: 「전공과」 교직 경력 융합 활용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을 마련함에 있어 전공과 역시 대학과 마찬가지로 직업특수교사의 자격 양성에 있어 주요한 교육과정 운영의 장이 된다[3,16]. 먼저, 직업특수교육 분야에서 전공과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재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상의 교육과정 기반과 직업특수교사의 자격과 관련된 전문 수행역량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전공과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이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으로 재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직업특수교사의 현행 전공과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인식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호 정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역시 전문 수행역량의 개발이 요구된다[2,4,7]. 현행의 시점에서 직업특수교사가 갖추고 있는 자격 활용 여부가 전공과의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나 성인기 장애인의 교육적 수요 차원에서 얼마나 타당한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2,14]. 그리고 현재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통해 전공과에 재직하면서 전공과의 운영 성격과 방향을 타당하게 이해하는 조건 안에서 전공과를 평생교육의 범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기에 직업특수교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융합됨에 있어 전공과는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장소로서 많은 가치를 가진다[15]. 결과적으로,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있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 기반 뿐 아니라 전공과 역시 직업특수교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융합되는 데 있어 기초적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하게, 전공과는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 기반과 달리 교육과정상 실습 이수 장소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

직업특수교사가 전공과에 대한 교직 경력을 얼마나 축적하였는가의 양적인 측면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융합되는 데 있어 전공과의 배경을 타당하게 정립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가 된다[2-11,14]. 전공과를 성인기 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이나 현행의 전공과가 갖추어 온 실정과 여건에 기반하여 점차 재구조화될 수 있는 구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특수교사의 전공과에 대한 교직 경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과 융합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공과 운영상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을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구성 관점으로 확장 및 보완함에 있어 기존과 현행에 전공과에서 편성·운영해 온 교육과정 기반 역시 계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직업특수교사가 전공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1-5,16]. 결국,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란 새로운 자격과 융합됨에 있어 기존과 현행의 전공과와 관련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과정 안에서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문성이 융합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업특수교사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에 대한 접근은 전공과의 교직 경력을 배제하고 선 타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한편, 직업특수교사의 전공과 교직 경력에 대한 질적 측면을 감안해 볼 때 교직 경력을 관리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직업특수교사의 전공과 교직 경력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 기반과 얼마나 정합되는가의 여부를 종합 사정해 나가는 절차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양식체계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업특수교사가 전공과 교직 경력의 과정에서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내용 및 지식을 얼마나 활용하였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점검 양식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점검 양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공과 현장의 관점에서 직업특수교사의 자격 및 전문 수행역량 등이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점에서 어떤 대안과 함께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사정할 수 있다[8]. 결과적으로, 직업특수교사의 자격 취득에 따라 전공과에 진출한 교사 대상이 전공과에 재직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잠정적으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어야 하며, 직업특수교사의 전공과에 대한 교직 경력을 양·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점과 근거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전공과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간의 정합성이 크게 담보되어야 하겠다.

2.3 교육대학원 중심 교육과정 이수 자격 조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취득 실제화

앞서 두 가지로 살펴본 기초적 자격 조건을 중심으로 직업특수교사가 실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시 교육대학원 중심 교육과정 이수 자격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1]. 직업특수교사가 학부과정의 일환인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에서 전공과와 연계·운영된 융합교육과정을 제공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학부과정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5]. 특히,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절차적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전적으로 직업특수교사의 고유한 자격을 전공과를 기반으로 하여 충실히 활용하는 경력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특수교사가 전공과에 재직하면서 교육대학원의 직업특수교육전공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업 절차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는 적용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직업특수교육의 전문성과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문성이 자격을 기준으로 경력개발경로를 유지하는 만큼 직업특수교육의 기초적 토대 가운데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관점과 이해가 활성화될 때에 교육대학원 중심의 교육과정 이수 자격 조건이 사회적 수요 안에서 합의될 수 있다[5][7][13][16]. 단적인 예로, 직업특수교사가 자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범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의 직업특수교육전공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절차 뿐 아니라 현행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자격 역시 취득해야 하는 부가적인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직업특수교사의 자격 취득 절차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절차를 즉각적인 형태로 융합시키거나 직업특수교사의 자격과 같은 단일한 차원에서 다른 자격(예: 평생교육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모두 다루는 데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직업특수교사의 자격 취득 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절차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일정 기간의 경력개발 및 학습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이 직업특수교사의 자격 취득과 융합된다고 하여 유사한 교과목 편성에 따른 교육과정 기반을 반영하는 측면은 지양되어야 함을 상기해 볼 수 있다.

직업특수교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성격과 맥락을 전문역량의 범주에서 충실히 이해해야 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적 성격과 맥락은 ‘교육’의 차원에서 교과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7]. 교과교육의 기반은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영역에 걸쳐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의 평생교육 분야가 지향하는 학문적·실천적 입장과 일치한다[16]. 이에, 교육대학원의 직업특수교육전공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을 고려할 시 교육과정의 주된 기반으로 기초문해교육 등과 같은 영역의 교과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안은 직업특수교사가 직업교육의 맥락에서 성인기 장애인의 전반적인 성인생활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이점이 제고될 뿐 아니라, 현행의 구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고려되는 대상(예: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본질적 성격인 ‘교육’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전문역량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일환이 된다[15]. 또한,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기반은 학부과정인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 기반과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주요 방안요소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소지한 대상이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 접근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현행 전공과에서 교육과정상 적용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내용 기반을 기초문해교육, 인문소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기타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거나 직업교육의 내용과 활용 기반을 더욱 확장하여 다룰 수 있는 전문역량을 보장한다.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직업특수교사는 앞

서 고찰한 기초적 자격 조건을 충족한 대상이기 때문에 전공과 재직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의 교육과정 내용 기반을 실제적으로 문제인식할 수 있는 동기와 역량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연구와 실천 입장에서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과 전공과 간 기능적 정합성과 관련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기반을 개발할 시 사전에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전공과 상황에서 성인기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교육, 기초문해교육 교과교육, 문화예술교육 교과교육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실제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교과교육의 범주가 현행의 전공과 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에 대해 상호간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탐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각 교과 영역(예: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교육 등) 안에 하위로 구성되어야 할 교과목과 내용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대학·전공과 간 협업에 의해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단,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서는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각 교과 영역 중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과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운데 타 교과과정에 대해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과정의 내용 기반을 상호간 융합시킬 수 있는 융복합 교과목(예: ‘장애성인의 직장생활과 여가’ 등)을 특별히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융복합 교과목이 전공과의 교육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수용 가능한가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직업특수교사의 공감대와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전공과에 재직하고 있는 직업특수교사가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 진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이므로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서 학업적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내용을 전공과의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거나 실습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으로 융합 및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4 자격 표시 조건: ‘장애인 평생교육사(전공과)’ 활용 고려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과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감안할 때 그 자격화 조건의 일환으로 전공과가 자격 표시 조건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명칭을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이라고 가정할 때 상호 융합적으로 전공과의 용어를 기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전공과의 용어가 자격 표시 조건으로 반영되는 측면은 직업특수교육과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 간에 기능적 정합성을 강조해주는 일환이 되며, 전공과 자체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인증하는 일환 역시 된다[4]. 그리고 전공과 뿐 아니라 타 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로 인증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전공과의 경우 타 유관기관에 비해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교육’의 실천적 성격과 맥락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입지가 보다 유리할 뿐 아니라 교과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을 학령기 특수교육과정과 같이 장기적인 지원체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점 역시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공과에 재직하는 직업특수교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할 시 타 분야의 전문가(예: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와 상호 변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 표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 중 전공과가 차지하는 위상과 교육과정 기반 및 운영상의 이점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치부여해 볼 수 있는 운영모델 등이 활발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전공과는 타 유관기관에 비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협업할 수 있는 입지와 여건이 시·도교육청 등의 매개로 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써 원스톱 체계(one-stop system)를 구축 가능한 대학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등의 타 유관기관에 비하여 상위의 위치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차원에서 전공과 등과 같은 유관기관을 자격 취득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근거와 적용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5 자격 진출 및 활용 조건: 전공과의 리더십 기반 타 유관기관 간 융합 실천

전공과에 재직하고 있는 직업특수교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시 자격의 진출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자격에 대한 정착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공과의 리더십 기반 타 유관기관 간 융합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기존과 현행에서 전공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 기반은 타 유관기관에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5,14]. 전공과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됨에 따라 기존과 현행에 운영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은 기초교육의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교과과정(예: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교육, 기초문해교육 교과교육 등)은 집중 및 심화교육의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공과에서는 기초교육의 단계에서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을 타 유관기관(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타 유관기관에서 전공과의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내용 기반을 효과적으로 학습한 장애인이 전공과의 집중 및 심화교육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담보할 수 있다[1,3,5,12,15]. 전공과 과정은 이런 측면에서 타 유관기관과의 관계성 정립에 있어 주도적인 리더십을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융합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다.

현행의 장애인 평생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전문역량이 담보되지 못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특수교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 등의 기존 전문인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비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13]. 이런 실정에 대해 직업특수교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이후 전공과 뿐 아니라 타 유관기관(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 진출하는 부분은 전공과의 평생교육 재구조화 측면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직업특수교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대상으로서 타 유관기관에

서 종사하는 기존 전문인력(예: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본래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기초훈련 및 상담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다[5,12]. 전공과가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재구조화될 경우 현행의 규모에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수요에 의하여 전공과에 진학하게 되며, 이로써 타 유관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전공과의 평생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또는 학습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기초적·사후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원(예: 직업상담, 직업기능훈련, 취업 연계 지원고용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공과의 리더십에 기반하여 타 유관기관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해야 할 전문역량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며, 전공과의 평생교육 차원과 융합 실천하는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직업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할 실제적인 수요 역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전공과에서는 기존과 현행에서 운영해 온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의 교육과정 기반을 타 유관기관과 융합하여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공과에서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예: 직업능력개발교육 교과교육, 기초문해교육 교과교육 등)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융합적 운영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평생교육 수요를 가진 장애인이 타 유관기관에서 전공과의 평생교육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내용 기반이나 기관별 로드맵 체계 등이 여러 사례별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직업특수교사가 융합적으로 접근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전공과와의 유기적 협업을 주기적으로 갖는 타 유관기관에 진출하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요 여건과 필요성이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에서 재구조화된 전공과 기관 및 전공과 내 교육과정에 기반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켜야 하겠다.

3.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능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주요 방안을 중심으로 결론 및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3.1 두 기관 간 융합교육과정의 단계별 실체화

본 연구는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의 융합교육과정을 두 가지의 단계별로 실체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과 융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특수교사의 자격화 제도를 감안하여 첫 번째 단계를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의 전공과 운영에 대한 교육적 실태 및 요구를 중심으로 학부과정에 해당하는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 기반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를 주요 기반으로 하여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이 실제로 양성될 수 있는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전공과에서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집중적이고 심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범주와 융합되는 데 있어 현행의 제도적 절차가 고려될 때 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의 단계를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의 단계는 학부과정인 대학 직업특수교육과에서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공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감안하여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 의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적 이수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대상이 전공과의 교직 경력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자율적인 수료로써 취득할 수 있다는 방안과 함께 학부과정과 교육대학원 과정 간의 학습과정 경로를 설정하여 두 자격 간의 상호 체계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론 내용을 종합하여 후속적으로 직업특수교사의 현행 자격화 제도 및 전공과 실태와 요구에 기반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예: 자격 기준, 자격 등급, 자격 수준 등)를 다양하게 조망하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직업특수교육-평생교육 간 융합 리더십 주도의 교육 사업화

본 연구는 「대학-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과」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조건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격 조건에 이어서 직업특수교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예: 교육대학원 중심의 교육과정 이수 자격 조건, 자격 표시 조건 등)를 제시하였다. 이런 자격 조건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의 기초적 자격 조건이 충실하게 수반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나아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가기관의 리더십도 중요하다[3,6,11,14,16]. 여기서 국가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역구 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하여 현행의 개정 「평생교육법」 취지에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을 가리킨다. 특히, 본 연구가 다루는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은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교육 사업화의 일환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8]. 무엇보다도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특수교육의 융합 관점에서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제반 지원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입지가 조직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을 실제 현실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화 제도에 긴밀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교육 사업의 공모와 예산적인 지원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교육과정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화 제도는 대학이나 전공과 자체적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예산이나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할 때에도 특정 학회나 협의회 등에 의해서만 자격화 제도가 다루어지란 한계가 많다[7,11-13,16]. 이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

는 운영모델 연구를 공모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차적으로 공모에 선정된 대학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화 제도와 관련하여 거점 및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전공과 협업할 수 있는 교육 사업 역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에 재직하면서 직업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상이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에 진학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업 예산 및 교원인사제도와 관련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여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 연계 연구 및 교육 사업을 공모하여 직업특수교육 및 전공과와 성인기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정합성을 안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범주에서 전공과가 필수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회적 수요 및 공감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전공과에 대한 역할 기능과 리더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3,14,16]. 앞서 결과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전공과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성인기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반을 활발히 구축하는 것은 타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주요한 이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화 제도를 위해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협업 가능한 전공과를 전국 단위에서 우선순위로 변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과와 협업 가능한 타 유관기관(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 있어서도 전공과 협력 인증기관으로써 선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대학과 전공과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화 제도에 관심을 높게 할수록 사회적 수요의 공감대 차원에서 전공과의 평생교육기관화 뿐 아니라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에 대한 협동과정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예: 장애인 평생교육사(가칭)) 양성과정」이 개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덧붙여, 직업특수교사의 자격 대상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융합 취득한

후 전공과 뿐 아니라 타 유관기관에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적 활용 방안을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17-20].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여 볼 때 후속적으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직업특수교육-평생교육 간 융합 리더십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 사업의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논의 작업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업특수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직업특수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간의 기능적 정합성을 대학 직업특수교육과(교육대학원 포함)와 전공과 간 융합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연구를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S

- [1] Y. J. Kim. (2018a). A Curriculum to Improve the Cooperation Course of 「Fostering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in the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of University.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7(1), 187-213.
- [2] Y. J. Kim & Y. S. Jung. (2018). A Study on the Practical Integration Model of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Lifelong Education : Directio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2), 87-111.
- [3] Y. J. Kim & J. Y. Kim. (2018a). Plan for an Integration System based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to Foster Cooking Startup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2(1), 23-58.
- [4] Y. J. Kim. (2017a). Training of Lifelong Education Industrial Workers Among Parents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mpete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Vocation and Qualification*, 6(2), 79-111.
- [5] Y. J. Kim. (2017b). Establishment Plan on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Center Organization and Curriculum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Disabled.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3(3), 87-123.
- [6] Y. J. Kim. (2015). A Study on Applications of School Age Evidence-based Transition Education Practice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from Perspectives of Lifelong Learning.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1), 137-166.

[7] Y. J. Kim & M. A. Do. (2017). Development of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1(4), 61-100.

[8] Y. J. Kim. (2017c). The Effects of Independence Life Training through Collaboration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in Majoring Course on the Wash Staff Employment Task Skill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3), 67-90.

[9] Y. J. Kim & J. H. Jang. (2017). The Effects of In-Basket based Connection Learning in Lifelong Education Center at University through Workplace Instruction of Employer on Cooking Skills for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4), 121-141.

[10] Y. J. Kim. (2017d). Operation Plan of Worksite-affiliated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7(2), 173-198.

[11] Y. J. Kim. (2006). An Analysis of National Lifelong Learning Policy : Focus on the Annual Plan for 2006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2(1), 145-168.

[12] Y. J. Kim & M. A. Do. (2014a). A Discussion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Task on the School Ag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in Future Adulthoo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3), 39-68.

[13] Y. J. Kim & M. A. Do. (2014b). A Study on the Integrated Instruction Approach of Task Skills and Self-Management Skills in terms of Vocational Education for Adulthood Transition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0(3), 291-330.

[14] J. Y. Kim. (2016). A Study on Composi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1), 65-92.

[15] K. S. Oh. (2001). A Study on the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f Special School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1(1), 21-43.

[16] G. H. Choi. (2014). The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Counselor Certification and Tasks for Development of Code of Professional Ethics. *The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4(3), 105-127.

[17] Y. J. Kim. (2017e). Reality Factors and Improvement

Plans to Foster Lifelong Educators for Disabled.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35(2), 1-14.

[18] Y. J. Kim & J. Y. Kim. (2018b). A study on the Evidence-based Practices for Lifelong Education (Vo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351-359.

[19] Y. J. Kim & K. S. Kang. (2018a). Lifelong Education Integrated Approach to Vocational Special Education in terms of Qualifi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21, 9(6), 603-618.

[20] Y. J. Kim & K. S. Kang. (2018b). Restructuring Pla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System from the Convergenc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lture and Convergence*, 40(8), 365-402.

김 영 준(Kim, Young Jun)

[정회원]



- 2003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특수교육학사)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문학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학 박사
- 관심분야 : 직업재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 E-Mail : kcons@kcons.or.kr

강 경 숙(Kang, Kyung Sook)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문학사)
- 199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7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박사
- 관심분야 : 통합교육, 융복합교육
- E-Mail : grace86@wku.ac.kr